

날짜 2024-11-03(D1) 본문 눅23:1-12
번호 2568 설교 변일국 목사
구분 주일예배, 성찬 찬송 찬89 '샤론의 꽃 예수'

시작 주기도
찬송 찬89 '샤론의 꽃 예수'
기도 권영희 사모
본문 눅23:1-12
설교 '대제사장들의 무리, 총독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
성찬 마26:26-28, 찬230,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찬송 찬88, '내 진정 사모하는'
봉헌 변준석 형제
광고

① 변환(pdf → hwp) 작업 : 창5:9, AC.500-503, '에노스는 구
십 세에 계난을 낳았고'

헌금기도

¹⁰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¹¹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
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
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58:10-11)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괴로운
자를 돕는 일,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

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23장, 오늘은 그 첫 번째 본문으로, 주님이 대제사장들의 무리, 총독 빌라도,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소위 조리돌림을 당하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세력, 곧 대제사장들의 무리, 총독 빌라도,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에 대하여 풀어주신 말씀, 곧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교회의 진리가 처음 것이 되고, 도덕적 진리는 중간 것,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진리의 질서가 그러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도덕적 진리를 거쳐 세상 법 안으로 흘러 들어가 그것을 통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차 하나님의 나라로 변합니다. 반대로 교회의 마지막 때에는 그 질서가 반대가 됩니다. 즉 가장 낮은 진리인 세상 법이 처음의 것이 되고, 도덕적 진리가 중간 것, 교회의 진리가 가장 마지막 것이 되지요. 이런 경우에는 교회의 진리가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나쁜 풍조가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참된 진리이신 주님이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빌라도, 헤롯에게 차례로 심판받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참된 진리가 거짓 진리에 의해 박해를 당합니다.’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곧 ‘가이사를 섬기는 건 세상 법도를 따르는 삶, 즉 자연적 삶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삶이며, 영적인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조화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삶을 위해 자연적 삶을 버려서도 안 되고, 자연적 삶을 위해 영적 삶을 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연적 삶은 영적 삶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신, 이 두 권면이 오늘 제게 깊이 납습니다. 주님, 이 권면들이 제 안에서 살아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 모인,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